

수원시장 후보에게 들었다… ‘빅버드’ 날개 활짝 펼 전략

(수원월드컵경기장)

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 서포터스인 프렌데 트리폴로는 페이스북을 통해 양당 수원 특례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수원월드컵경기장 소유권 및 운영권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프렌데 트리폴로 측은 양당 후보 측에 수원 월드컵경기장 운영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월드컵경기장도 kt 위즈파크처럼 장기임대를 통해 구단의 실질적 운영을 보장하는데 동의하는지 질의했다.

현재 수원월드컵경기장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6대 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운영권 이원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장 시설 사용규정도 경기장 임대 등 수익사업은 이사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해 사실상 경기도가 운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선되면 경기장에 대한 경기도의 지분을 수원으로 가져오기 위한 실무협의를 착수하겠다”면서 “도와 지자체간 지분문제 정리 후에는 장기임대 추진이 가능하다. kt위즈파크 사례를 참고삼아 안정된 구단운영이 가능토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남 국민의힘 후보는 “삼성축구단의 불만을 충분히 이해한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경기장 사용료 등과 관련 조정 등 협력해 드리고 싶어도 의사결정권이 한계에 있다”면서 “수원삼성 축구단이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장 시설 사용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최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원월드컵경기장 주변 버스정류장의 명칭 및 디자인을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다. 현재 kt위즈파크 주변 정류장은 디자인과 광고판을 시전 전체일정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재준 후보는 “경기장 주변 버스정류장, 안내사인 등을 정비해 경기장을 사용하는 프로구단의 홍보마케팅에 원활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신분당선 연장, 신수원선의 환승역으로 조성될 수원월드컵경기장역 주변은 더블역세권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남 후보는 “당연히 변경할 것”이라면서 “다만 월드컵경기장과 어울리는 명칭 및 디자인은 관계 전문가의 검토 후 신속히 변경을 추

이재준 후보

“도 지분 가져오기 위한 실무 협의”
“더블역세권으로 탈바꿈시킬 계획”

김용남 후보

“결정권 한계 있지만 행·재정적 지원”
“다양한 동호인·체육대회 유치 발굴”



수원 삼성축구단 서포터스인 프렌데 트리폴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특례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수원 월드컵경기장 소유권 및 운영권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공유했다. 사진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원 삼성 제공

진하겠다”고 전했다.

수원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수원의 스포츠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그 구상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이재준 후보는 ▲유소년 클럽스포츠 지원 강화 ▲사회인 스포츠 지원 ▲프로스포츠 선수와 지역의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후보는 “이목동, 매탄동 등에 초·중·고 학생선수를 위한 체육공간을 1차 검토해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탄탄한 선수수급이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한 프로스포츠 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면서 “또한 비시즌 동안 프로스포츠 선수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김용남 후보는 “먼저 각 스포츠종목별 매니아들이 많아야 된다. 둘째는 종목별 시설이 많아야 하고, 셋째는 종목별 시설에 걸맞은 각종 스포츠 대회가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및 전국단위·도단위 체육대회 등 유치 발굴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연계된 이벤트성 생활체육 등 발굴 지원 ▲학교체육활성화 위한 시설확충 지원 강화 ▲서수원·북수원에 동호인 야구·축구장 조성 추

진 ▲스포츠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및 수원시 프로구단들의 자생력 확보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재준 후보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스포츠와 문화는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 속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스포츠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지역과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지속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스포츠메카 수원특례시를 완성하는데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용남 후보는 “자생력을 갖기 위해 지속적인 광고 마케팅과 팬마케팅이 필요하다”면서 “구단도 연구지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 공헌활동으로 수원특례시와 구단이 하나의 동반자적 협력체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프렌데 트리폴로 측은 “수원특례시장 유력 후보 소속 양당이 수원 삼성 블루윙즈 축구단 및 서포터스가 안고 있던 피해 및 불만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선거 기간 유권자들의 표를 잡기 위한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세영 기자

‘FA컵 최다 우승’ 수원 삼성, 7년 연속 8강 진출 노린다

오늘 홈에서 강원 상대로 14연승 도전
염기훈, 최다 출전 44경기 기록 기대

FA컵 최다 우승팀 수원 삼성이 강원FC를 상대로 7년 연속 8강 진출에 도전한다.

수원은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하나원큐 FA컵 16강전(4라운드)에서 강원을 상대한다.

FA컵 최다우승(5회·2002, 2009, 2010, 2016, 2019년)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은 결승전에만 총 8번(최다·1996, 2002, 2006, 2009, 2010, 2011, 2016, 2019) 진출한 경향이 있다.

그만큼 FA컵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수원은 FA컵 총 81경기를 치른 가운데 역대 전적에서 57승 1무 23패를 기록하며 70%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다.

홈경기장인 빅버드에서 치르는 경기로 따지면 더욱 높은 승률(93%)을 뽑내고 있다. 총 28경기 무패(20승8무)를 기록 중인 수원은 FA컵 홈경기에서만 13연승(승부차기 승 4회 포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선수 개인기록도 주목할 만하다. 팀의 키플레이어인 염기훈은 FA컵 통산 최다출전 기록인 44경기에 나섰다. 이번 16강전에서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FA컵 최초로 대회 MVP 2회 수상(2010, 2016)에 빛나는 염기훈은 수원 소속으로도 FA컵 최다출전(37경기), 최다득점(10골), 최다도움(14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수원이 강원을 이긴다면 전북 현대와 울산 시민축구단의 16강 대결 승리팀과 오는 6월 29일 열리는 8강전에 나설 수 있다.

부천FC1995는 같은 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1 팀의 키플레이어인 염기훈은 FA컵 통산 최다출전 기록인 44경기에 나섰다. 2 수원 삼성이 25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2 하나원큐 FA컵 16강전(4라운드)에서 강원FC를 상대한다. 수원은 이번 대회에서 7년 연속 8강 진출에 도전한다. 사진은 2019년 FA컵 우승 세리머니 모습. 수원 삼성 제공

서 K리그2 무대에서 선두경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FC와 만난다.

부천은 지난달 27일 수원FC와의 3라운드에서 승리하면서 5년 만에 FA컵 16강 무대를 밟는다.

부천은 역대 FA컵에서 상위리그 팀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 2016년 포항스틸러스와 전북을 꺾고 당시 K리그2 최초로 FA컵 4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2017년에는 K리그1 강호 전북을 꺾었고, 2022년 역시 3라운드에서 K리그1 팀인 수원FC에 승리하며 강팀에 강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가오는 광주와의 맞대결은 향후 K리그2 우승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다. 부천은 강팀에 강한 DNA를 다시 한 번 일깨우겠다는 각오다.

FA컵에서 주목할 선수는 ‘파나마 특급’ 요르만 아길라르다. 지난 FA컵 2라운드 춘천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침착한 마무리로 팀의 선제 득점을 올렸다.

이어 수원FC와의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침투 패스로 최재영의 프로 데뷔골이자 팀의 결승골을 도왔다.

한편 성남FC는 포항 스틸러스와 원정 16강전을 치른다. 최근 리그경기 승리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성남은 FA컵에서도 상승세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FA컵 3라운드에서 충남아산을 제압하며 16강에 오른 성남은 지난 주말 K리그1 FC서울과의 원정에서 1-0으로 승리하며 리그 2승째를 올렸다.

성남은 포항과 16강전을 통해 리그에서의 부진을 말끔히 씻겠다는 각오다. 김세영 기자

최희온, 전국남녀중고테니스대회 ‘정상’

(여자고등부 단식)

올 시즌 두 번째 단식 우승 쾌거

최희온(부천G스포츠클럽)이 제58회 바볼랏 전국남녀중고등학교테니스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최희온은 24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대회 7일째 여자고등부 단식 결승전에서 이수연(오산G스포츠클럽)을 세트스코어 2-0(6-1 6-1)으로 가볍게 따돌리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로써 최희온은 지난 3월 열린 제5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에 이어 올 시즌 두 번째 단식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준결승전에서 김효선(강원 원주여고)을 2-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한 최희온은 이날 첫 세트부터 활발한 공격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1, 2세트를 모두 6-1로 이겼다.

최희온을 지도한 김형민 코치는 “훈련기간 동안 선수 부상이 많았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

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면서 진행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 “부상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기력을 뽑아내기 위해 상황에 맞는 연습에 더 집중했는데 이 점이 주효했던 것 같다. 선수의 장점을 더 살려 코치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남고부 단식 4강은 한찬희(고양TA)-이치호(강원 양구고), 김성욱(연천 전곡고)-김세현(양구고)의 대결로 좁혀졌다.

이날 열린 남고부 단식 8강에서는 한찬희가 이진우(양구고)를 상대로 기권승을 거뒀으며, 이치호는 심관욱(부천G스포츠클럽)을 2-0(6-2 7-5)으로 물리쳐 준결승에 올랐다.

남고부 복식 준결승에는 한찬희-송남기 조(고양TA)가 이상진-정택규 조(수원 삼일공고)를 2-0(6-1 6-2)으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해 오형택(경북 군위고)-조민기(서인천고) 조와 우승을 다툰다. 김세영 기자



23일 수원시내 모 음식점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도 역도선수단 출정식에서 전종근 경기도역도연맹 회장(앞줄 왼쪽 두번째)이 연맹 관계자 및 지도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경기도역도연맹 제공

“안전이 최우선, 좋은 성과까지 나오면 최고”

역도연맹, 전국소년체전 출정식 개최
전종근 회장, 임원·지도자들 격려

전종근(농협은행 수원시지부장) 경기도역도연맹 회장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경기도 역도선수단을 격려했다.

경기도역도연맹은 지난 23일 수원시내 모 음식점에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종근 회장은 연맹 임원들과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전국소년체전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

지난 2월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전 회장은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전국소년체전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개최되는 만큼 경기도 역사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대회를 마무리하고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좋은 성과까지 올리고 온다면 더할 나위없이 기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민수 기자

장애인체육회, 딸기재배 농가 일손 돕기 봉사 활동



24일 화성시 비봉면 딸기재배 농가에서 진행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들이 딸기도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제공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24일 화성시 비봉면 딸기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도장애인체육회와 경기농협, 고향주부모임이 영농철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소 및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농업·농촌 대상 지역 사회 공헌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 함께 하게 된 이날 봉사활동에는 사무처 임직원 19명이 참여했으며 딸기도 제거 작업 등이 진행됐다.

허범행 도장애인체육회 경영본부장(사무처장 직무대행)은 “이번 봉사활동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기쁘다”라며 “경

기도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사회에 도움을 실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와 농촌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상황인데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작은 정성들이 모여 농촌에 큰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민수 기자

